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출하 · 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기준 서울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8.9(2000=100)로, 전년동월대비 중공업이 크게(44.1%) 감소하고 경공업은 1.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9.4% 감소함 ○ 4월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3,11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1.3% 감소하고, 대형마트는 9.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1% 증가함 ○ 5월 기준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월(0.4%)에 비해 상승폭이 감소함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기준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보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한 63.3%로 남자는 75.2%, 여자는 52.1%임 ○ 5월 기준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497만9천명으로, 2006년 1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 4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보임 ○ 5월 기준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3.8%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0.6%p)는 4월에 비해 0.1%p 감소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9,81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4% 감소함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주택, 도로·교량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65.6% 감소하였으며, 재건축·재개발주택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35.6% 감소함 ○ 5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0.1%p 감소함 - 5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으며, 연립주택(0.4%)과 단독주택(0.3%)은 상승한 반면, 아파트(-0.1%)는 하락함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소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69조 1,651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7,863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5조 6,084억원)보다 소폭 확대됨 ○ 5월 기준 전월대비 서울의 신설법인 수 감소, 부도업체 수 증가, 어음부도율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1,764개) 보다 72개(-4.1%) 감소한 1,692개임 - 5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52개) 보다 3개 증가한 55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하고,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과 동일함 ○ 5월 기준 KOSPI 지수 계속되는 사상 최고치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중 증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안정적인 유동성 등 대내적 요인과 글로벌 증시 강세의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로 마감함(1,700.9p, 5.31일) ○ 5월 기준 장·단기 금리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의 상승과 콜금리의 하락이 맞물려 확대됨에 따라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생 · 산 |

4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최대

■ 전국 산업생산 증가세 확대

- 4월 전국의 산업생산은 수출호조와 내수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회복되어 전년동월대비 6.7% 증가함
- 업종별로는 영상음향통신의 부진이 지속(-15.2%)되었으나, 자동차(12.8%) 및 반도체(14.1%)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됨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최대

- 4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8.9(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9.1% 감소하여 1998년 이후 전년동월대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냄
- 업종별로 보면 컴퓨터 및 사무기기 등에서 증가한 반면 조립금속, 섬유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은 감소함

■ 서울 중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최대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44.1% 감소하여 최대 감소폭을 나타냄
- 세부업종별로 컴퓨터 및 사무기기(자동거래단말기, 144.3%) 등이 증가하고, 조립금속(철제문, -90.5%),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약품, -6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33.6%) 등 대부분이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하여 감소세가 크게 둔화됨
- 세부업종별로 가죽·가방 및 신발(39.5%), 종이제품(23.8%) 등이 증가하고, 음식료품(-19.1%), 섬유제품(자동차용카바, -15.7%) 등이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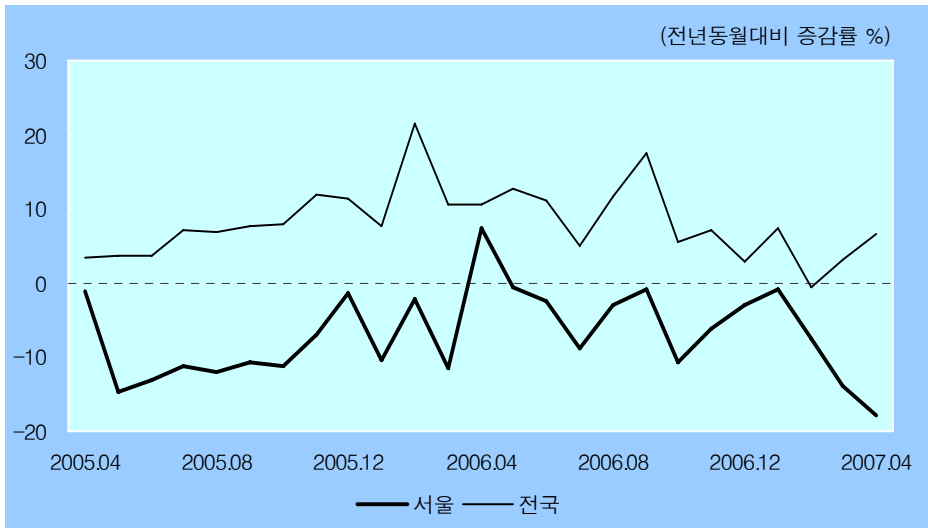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4월	12월	1월	2월	3월p	4월p	
전 년 동 월 대 비	전국	10.7 (-0.4)	3.0 (-2.8)	7.5 (1.3)	-0.6 (0.2)	3.1 (-0.3)	6.7 (3.1)
	서울 (제조업)	7.7 (13.2)	-2.3 (8.3)	0.3 (-14.7)	-7.6 (-13.5)	-14.5 (10.1)	-19.1 (7.1)
	중공업	19.8 (72.2)	-13.8 (25.2)	6.7 (-14.2)	-16.7 (-19.3)	-25.5 (2.9)	-44.1 (29.1)
	경공업	0.5 (-9.2)	2.7 (3.0)	-1.9 (-14.8)	-4.0 (-11.4)	-10.3 (12.8)	-1.1 (0.1)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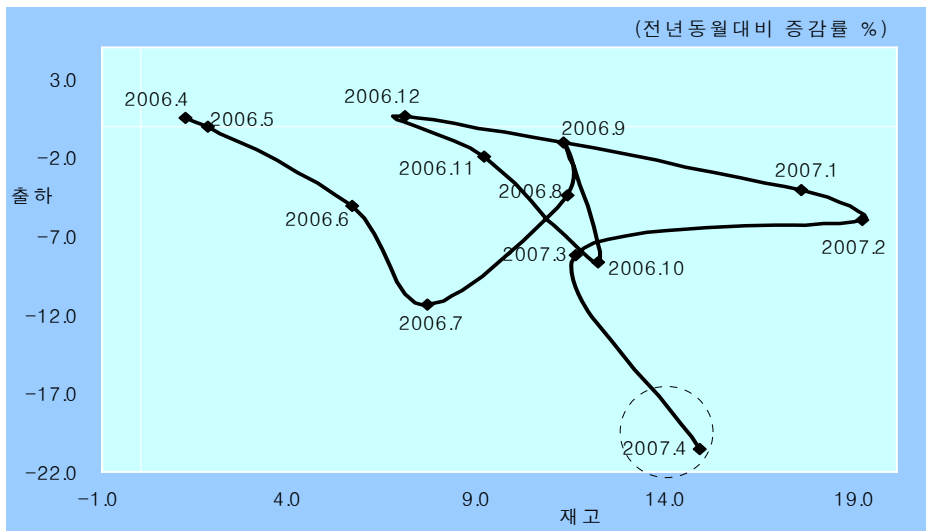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4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누증 단계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4월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20.5% 감소하고, 재고는 14.8% 증가함
-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출하 감소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재고는 비슷한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제조업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출하·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출하 전년동월비는 대폭 하향하고 재고 전년동월비는 소폭 상향하여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큰 폭으로 하락

- 4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3.1%로 전월대비 1.2%p 하락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87.1%로, 전월 보다 13.6%p 상승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월대비 56.6%p 상승한 226.4%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전월과 비슷한 172.8%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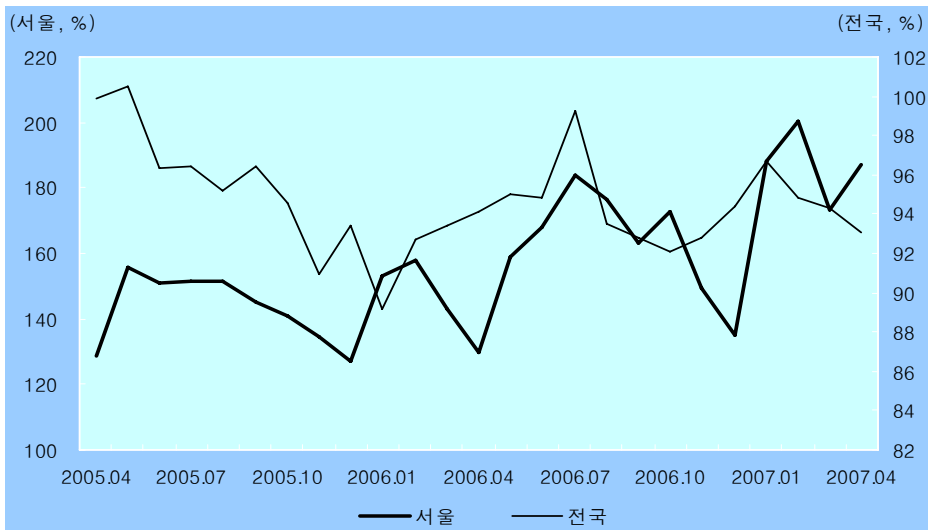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4월	12월	1월	2월	3월p	4월p	
재고율	전국	94.1	94.4	96.7	94.8	94.3	93.1
	서울 (제조업)	129.6	135.0	187.9	200.3	173.5	187.1
	중공업	169.9	113.9	219.8	233.9	169.8	226.4
	경공업	168.6	141.1	176.5	187.6	173.3	172.8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4월 기준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비 증가세 둔화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둔화

- 4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조 8,38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됨
- 전년동월대비 증가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에어컨, 컴퓨터 등의 내구재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데 주로 기인함
- 백화점은 가전제품,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함
- 대형마트는 가전제품,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둔화

- 4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3,11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1.3% 감소하고, 대형마트는 9.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1% 증가함
- 백화점부분의 경우 혼수용품 행사로 인해 증가하였던 가전, 가구, 귀금속, 의류 등의 상품군에서 판매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함
- 대형마트부분은 신규사업체 증가로 의복, 음식료품 등 전반적인 상품군에서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9.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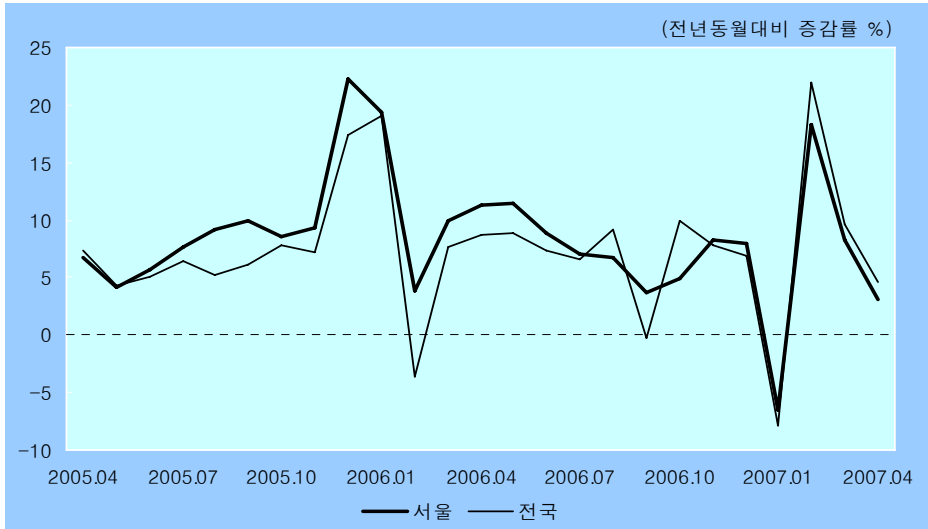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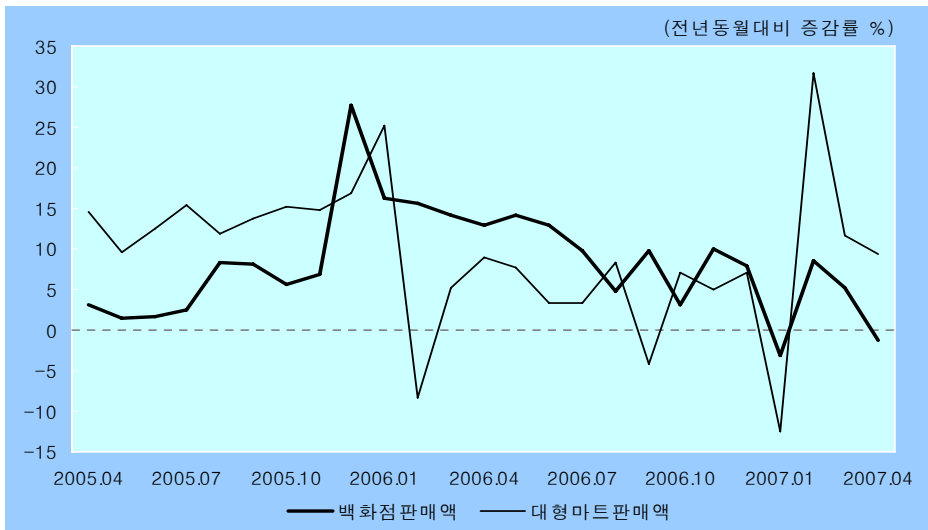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4월	12월	1월	2월	3월p	4월p	
판매액	전국	3,668.9 (8.7)	4,369 (6.9)	3,679 (-7.8)	3,939.6 (21.9)	3,887.1 (9.7)	3,838.0 (4.6)
	서울	1,272.2 (11.3)	1,555 (8.0)	1,254 (-6.5)	1,271.1 (18.3)	1,313.0 (8.2)	1,311.6 (3.1)
	백화점	760.7 (12.9)	966 (7.9)	725 (-3.1)	661.0 (8.6)	739.4 (5.2)	750.8 (-1.3)
	대형마트 (할인점)	479.5 (8.9)	548 (7.1)	485 (-12.5)	568.2 (31.7)	525.2 (11.7)	524.6 (9.4)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5월 기준 서울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폭 감소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 감소

- 5월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0.3%p) 감소함
- 이는 농축수산물(-1.4%)은 하락하였으나, 공업제품(0.4%), 공공서비스(0.5%), 집세(0.1%), 개인서비스(0.1%)가 상승한데 기인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 확대

- 5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0.4%p 감소함
- 전국의 물가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 5년간 5월 평균 물가상승률(0.1%)과도 동일함
- 비목별로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0%), 교양·오락(-0.4%), 통신(-0.1%)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섬유제품이 상승한 피복·신발(0.7%), 교통(0.6%), 주거및수도광열(0.6%), 기타잡비(0.1%) 부문은 상승함

■ 상품부문이 서비스부문에 비해 소폭 상승

- 상품성질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0.1% 하락한 반면, 서비스부문은 0.2% 상승함
- 상품부문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1.7% 하락하고, 공업제품은 학생복 등은 내렸으나 카레, 식용유 및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월대비 0.4% 상승함
- 서비스 부문을 보면 도시가스요금, 일부지역 쓰레기 봉투료 등이 올라 공공서비스가 전월 대비 0.5% 상승하였으며, 집세는 전세, 월세부문이 올라 0.3% 상승하고, 개인서비스는 숙박료(호텔)는 내렸으나, 자동차학원비, 공동주택관리비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함

■ 신선식품지수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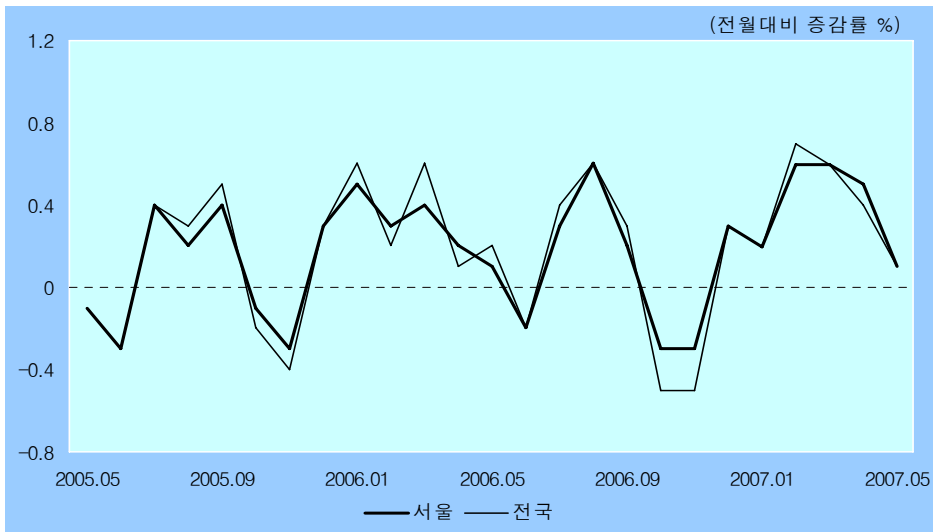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상승폭이 감소(0.5%p)함
-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7% 하락하여 지난달(0.7%)의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반전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 월 비	전국	0.2 (2.3)	0.3 (2.1)	0.2 (1.7)	0.7 (2.2)	0.6 (2.2)	0.4 (2.5)	0.1 (2.3)	
	서울	0.1 (2.1)	0.3 (2.1)	0.2 (1.8)	0.6 (2.1)	0.6 (2.3)	0.5 (2.6)	0.1 (2.5)	
	상품 성질별	상품	0.2 (1.5)	0.4 (0.8)	0.1 (0.2)	1.1 (1.3)	0.1 (1.7)	0.5 (1.9)	0.2 (1.5)
		서비스	0.0 (2.4)	0.2 (2.7)	0.3 (2.6)	0.4 (2.5)	0.9 (2.6)	0.4 (2.9)	0.0 (2.4)
	생활물가	-0.1 (3.1)	0.4 (2.7)	0.1 (1.9)	0.8 (2.2)	1.1 (2.6)	0.7 (3.2)	0.2 (3.5)	
	신선식품	-3.8 (-2.0)	3.0 (0.6)	0.6 (-3.1)	6.8 (4.0)	-1.8 (2.6)	0.7 (3.4)	-2.7 (4.6)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5월 기준 서울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포함세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동일

- 5월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40만6천명) 증가한 3,913만7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1.1%(27만명) 증가한 2,453만7천명임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년동월과 같았으며 남자는 74.8%로 전년동월과 같고, 여자는 51.2%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포함

- 5월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17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한 반면에, 경제활동인구는 517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한 63.3%로 남자는 75.2%, 여자는 52.1%임
- 반면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함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9 (0.7)	1.1 (-1.9)	1.0 (-0.8)	0.7 (-0.2)	0.8 (1.8)	1.0 (1.6)	1.1 (0.8)
	서울	-0.3 (-0.3)	-1.0 (-0.9)	-0.4 (0.1)	-1.1 (-1.0)	-1.1 (0.3)	0.0 (1.1)	0.7 (0.5)
	남자	-0.2 (-0.2)	-1.6 (-0.6)	-0.4 (0.3)	-0.4 (-0.2)	-1.2 (0.4)	0.0 (0.8)	0.4 (0.2)
	여자	-0.5 (-0.3)	-0.2 (-1.3)	-0.4 (-0.2)	-1.9 (-2.1)	-0.8 (0.2)	0.0 (1.5)	0.1 (0.8)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7	61.1	60.5	60.4	61.4	62.3	62.7
	서울	63.0	62.8	62.8	62.1	62.3	63.0	63.3
	남자	75.0	74.3	74.3	74.2	74.5	75.0	75.2
	여자	51.7	52.0	51.9	50.8	50.9	51.7	52.1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업·자 |

5월 기준 서울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취업자 수 증가

- 5월 전국의 취업자는 2,375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27만8천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7.8%(1,372만6천명), 여자는 42.2%(1,003만2천명)로 남자는 전년동월대비 1.0%, 여자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6.6%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청년층은 감소세, 고령층은 증가세인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감소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됨

■ 서울의 취업자 수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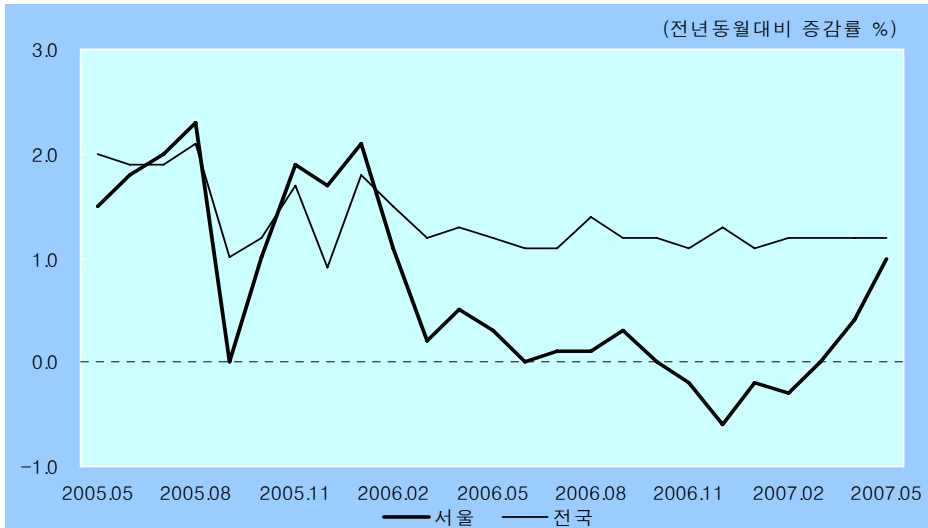
- 5월 서울의 취업자는 497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5만1천명) 증가함
- 전국의 취업자 수는 2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보합을 보인 반면에, 서울의 취업자 수는 지난 11월 이후 전년동월비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보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4%(285만9천명), 여자는 42.6%(212만명)로 전체 취업자중 남자 취업자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0.4%p 낮고, 여자는 전국에 비해 0.4%p 높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6% 증가하고 여자는 1.6%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남자와 여자의 취업자는 4월에 이어 증가세를 보임
- 전체 취업자의 21.6%(107만5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여 전국의 감소세와 상반됨
- 전체 취업자의 15.0%(74만9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8.0% 증가하여 3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폭이 점차 확대됨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취업자가 4.2% 증가한 것에 비해 60세 이상은 11.2%로 크게 증가함

〈표〉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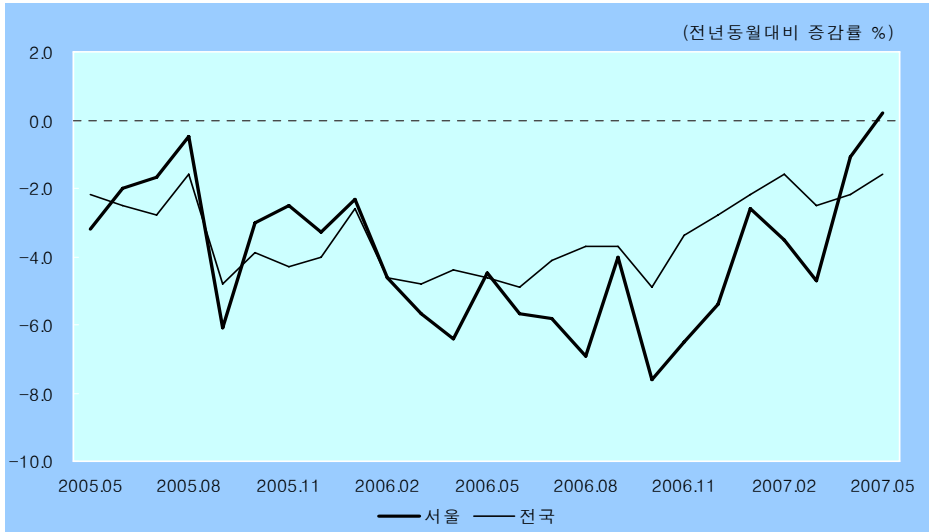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취업자	전국	1.2 (1.0)	1.3 (-2.0)	1.1 (-1.1)	1.2 (-0.2)	1.2 (2.0)	1.2 (1.7)	1.2 (1.0)
	서울	0.3 (0.2)	-0.6 (-0.8)	-0.2 (-0.4)	-0.3 (-0.9)	0.0 (0.8)	0.4 (1.2)	1.0 (0.8)
	남자	0.1 (0.5)	-1.5 (-0.7)	-0.9 (-0.4)	0.2 (0.5)	-0.4 (0.8)	0.2 (0.6)	0.6 (0.9)
	여자	0.6 (-0.2)	0.4 (-1.1)	0.7 (-0.3)	-1.0 (-2.7)	0.5 (0.7)	0.8 (1.9)	1.6 (0.6)
청년층 취업자	전국	-4.6 (0.7)	-2.8 (0.6)	-2.2 (2.2)	-1.6 (-2.1)	-2.5 (-2.2)	-2.2 (0.6)	-1.6 (1.2)
	서울	-4.5 (0.4)	-5.3 (1.1)	-2.7 (3.6)	-3.5 (-2.9)	-4.7 (-2.1)	-1.1 (2.5)	0.2 (1.7)
고령층 취업자	전국	4.0 (3.3)	6.4 (-7.8)	6.4 (-3.9)	6.4 (1.0)	5.6 (7.2)	6.6 (5.9)	6.6 (3.3)
	서울	2.4 (0.6)	6.3 (-1.8)	6.1 (-2.7)	6.3 (-0.6)	6.1 (2.2)	7.7 (3.2)	8.0 (0.9)
	55-59세	-0.3 (0.0)	-1.6 (-3.4)	-1.6 (-2.3)	-2.3 (-1.0)	1.6 (3.0)	1.9 (2.3)	4.2 (2.2)
	60세 이상	4.6 (1.3)	13.0 (-0.5)	12.8 (-3.1)	13.8 (-0.2)	9.9 (1.7)	12.7 (3.6)	11.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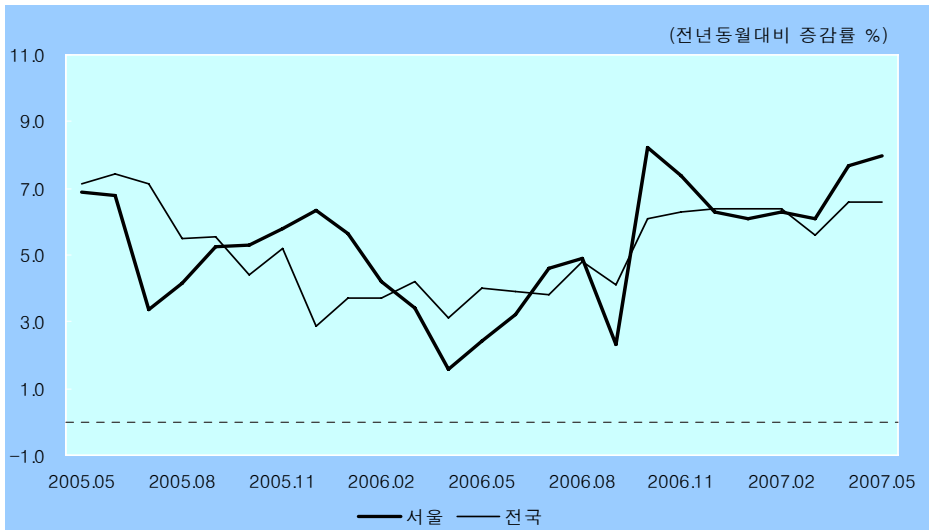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

- 5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8.7%)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7.0%), 제조업(14.2%),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1%), 건설업(8.9%)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8%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이어 전기·운수·통신·금융업(4.1%)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7.0%, 도소매·음식숙박업은 5.1%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달에 비해 소폭(0.8%p) 확대됨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수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

- 5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0.6%)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8.9%), 서비스·판매 종사자(24.3%), 사무종사자(16.0%) 순임
- 전년동월대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1.5%)를 제외하고, 사무종사자(2.9%)와 전문·기술·행정관리자(2.8%), 서비스·판매 종사자(0.7%)는 증가함
-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1월 이후 지속된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됨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 5월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4.0% (368만3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6.0%(129만6천명)로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0.6%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9%(6만7천명) 증가한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 1.2%(1만6천명) 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 수의 감소폭이 축소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0.6%)와 임시근로자(-0.9%)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8.2% 감소한 반면, 자영업주는 0.1% 증가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산업별	· 제조업	-5.4 (0.4)	-6.8 (-1.8)	-4.3 (0.8)	-8.5 (-3.2)	-11.1 (-1.0)	-6.2 (2.3)	-7.0 (-0.5)
	SOC 및 기타서비스업	1.4 (0.2)	0.5 (-0.7)	0.6 (-0.6)	1.2 (-0.5)	2.1 (1.0)	1.7 (1.0)	2.6 (1.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3 (-0.9)	3.1 (-1.2)	4.5 (0.1)	5.3 (0.2)	6.7 (1.7)	6.0 (1.5)	8.8 (1.7)
	· 도소매·음식숙박	0.4 (0.8)	-1.2 (1.4)	-2.6 (-2.4)	-3.4 (-2.0)	-2.2 (0.4)	-4.0 (-1.8)	-5.1 (-0.3)
	· 전기·운수·통신·금융	1.4 (2.3)	-0.3 (-0.2)	-0.1 (1.5)	0.9 (-0.8)	-1.3 (-4.2)	3.4 (5.6)	4.1 (3.0)
	· 건설업	0.8 (-0.1)	-3.7 (-5.7)	-3.9 (0.2)	0.2 (2.2)	1.5 (7.1)	0.4 (2.2)	0.5 (0.1)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5 (-0.5)	0.4 (-2.3)	3.0 (1.6)	4.1 (0.7)	1.9 (0.0)	1.7 (1.5)	2.8 (0.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1 (0.9)	-3.0 (-3.5)	-2.3 (-0.2)	-0.6 (-2.2)	-1.4 (1.3)	-1.7 (2.2)	-1.5 (1.1)
	서비스·판매종사자	-5.2 (-1.3)	1.7 (3.7)	-2.1 (-4.0)	-5.1 (-3.7)	-1.2 (2.9)	-0.7 (-1.0)	0.7 (0.1)
	사무종사자	0.2 (2.8)	-2.1 (-0.3)	0.5 (1.5)	-0.6 (-2.2)	0.4 (-1.9)	4.0 (2.2)	2.9 (1.8)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1.8 (0.9)	0.1 (-1.1)	2.2 (1.3)	1.8 (-1.0)	1.0 (0.2)	1.8 (1.7)	1.9 (0.9)
	비임금근로자	-3.7 (-1.6)	-2.6 (-0.2)	-6.4 (-4.9)	-5.8 (-0.6)	-2.6 (2.4)	-3.3 (-0.3)	-1.2 (0.5)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5월 기준 서울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실업률 하락세 유지

- 5월 전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비 동일한 3.2%(실업자 77만9천명)로 2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7%(실업자 52만6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2.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여 여자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
- 교육정도별로 보면 중졸 이하는 2.0%, 고졸은 3.6%, 대졸 이상은 3.5%로 고졸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의 실업률 하락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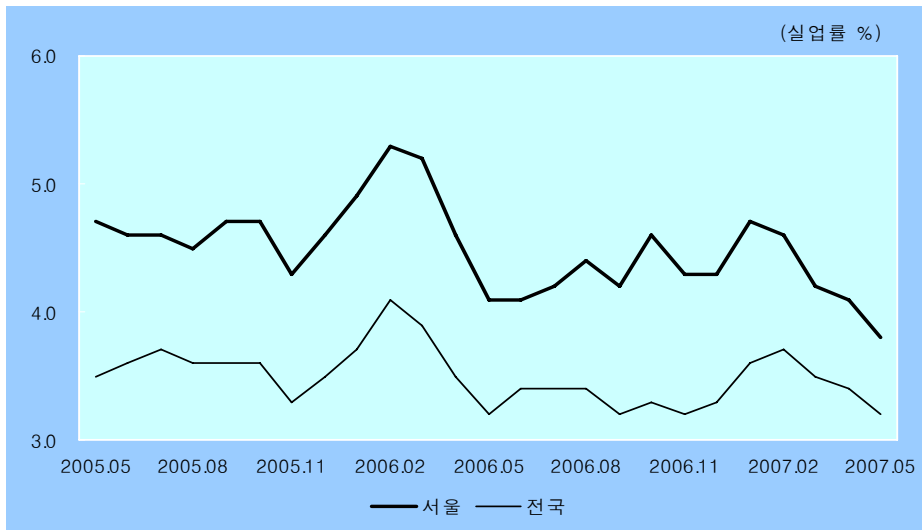
- 5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3.8%(실업자 19만7천명)임
- 5월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격차(0.6%p)는 3월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지난 5년간 4월 평균 실업률 4.3% 보다 0.5%p 낮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 여자는 3.4%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2%p, 여자는 0.4%p 감소하여 여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전국에 비해 남자는 0.9%p, 여자는 0.2%p 높은 수준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국과의 격차가 더 큼
- 2월과 3월의 보합을 보인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 격차는 4월 들어 1.6%p로 격차가 커진 후 5월에 0.7%p로 격차가 감소함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3.2	3.3	3.6	3.7	3.5	3.4	3.2
서울		4.1	4.3	4.7	4.6	4.2	4.1	3.8
성 별	남자	4.3	5.0	5.6	5.0	4.6	4.8	4.1
	여자	3.8	3.3	3.5	4.0	3.6	3.2	3.4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4월 기준 서울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 큰 폭 증가

- 4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7조8,406억 원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8.9% 증가함
-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45.5%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 43.6%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에서 103.0% 증가하고, 건축부문도 37.8% 증가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 큰 폭 감소

- 4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9,812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4% 감소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12.5%를 차지함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주택, 도로·교량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65.6% 감소하였으며, 재건축·재개발주택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35.6% 감소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5.8%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46.6% 감소하였으며, 3.6%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687.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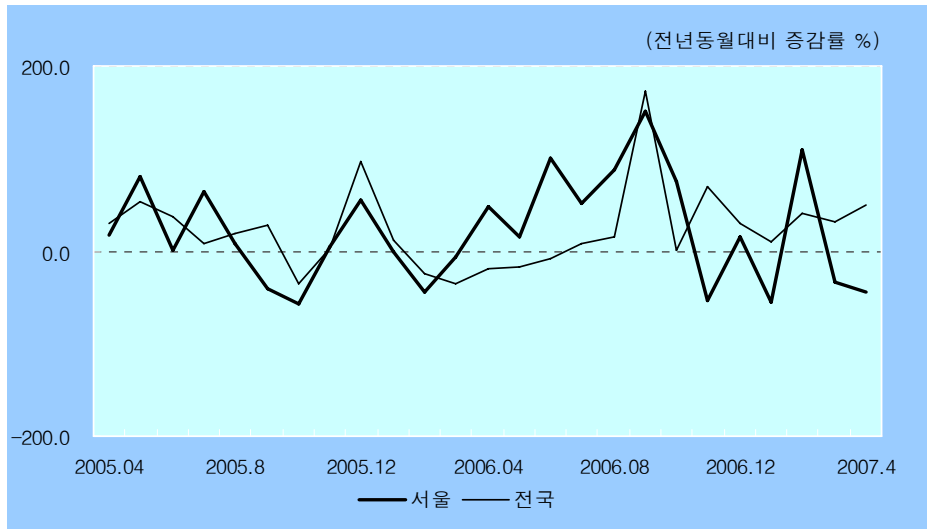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5,265.7	16,050.8	6,411.1	6,325.5	7,941.9	7,840.6	48.9	(-1.3)	
서울	1,765.3	1,721.3	421.6	859.3	765.1	981.2	-44.4	(28.2)	
발주자별	공공	519.7	152.6	31.3	99.5	162.0	178.7	-65.6	(10.3)
	민간	1,245.6	1,564.4	390.2	759.8	603.1	802.5	-35.6	(33.1)
공종별	건축	1,760.8	1,609.3	407.7	815.4	654.1	939.8	-46.6	(43.7)
	토목	4.5	95.8	13.6	36.5	103.2	35.4	687.8	(-65.7)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5월 기준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감소

- 5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5,219,668㎡로 전년동월대비 209.0% 증가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연립(-2.0%)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아파트(67.0%)와 단독(12.9%)의 신축허가면적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4월 대비 35.6% 증가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상업용(315.8%)은 증가하고, 공업용(232.7%), 문교 및 사회(16.2%), 기타(2285.7%)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235.6% 증가함
- 5월 신축허가면적이 가장 큰 구는 강서구(1,226,321㎡)로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소가 1,083,671㎡를 차지함
- 아파트 신축허가면적은 동작구가 113,55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m²,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서울	1,689,152	122,682	536,251	463,808	306,466	5,219,668	209.0 (1603.2)	
주거용	소계	224,588	58,578	46,534	140,262	95,525	304,444	35.6 (218.7)
	단독	13,638	870	4,008	5,631	5,046	15,399	12.9 (205.2)
	연립	93,501	46,509	41,498	96,209	68,718	91,656	-2.0 (33.4)
	아파트	117,449	11,199	1,028	38,421	8,706	196,135	67.0 (2152.9)
비주거용	소계	1,464,564	64,103	489,717	323,546	210,940	4,915,224	235.6 (2230.2)
	상업	1,033,779	49,539	76,217	160,171	103,336	4,298,279	315.8 (4059.5)
	공업	26,950	3,168	0	125,957	84,899	89,650	232.7 (5.6)
	문교/사회	400,710	10,283	412,534	28,292	22,557	465,762	16.2 (1964.8)
	기타	1,969	1,113	966	9,126	148	46,974	2285.7 (31639.2)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5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세 둔화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보합

- 5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 로 보합을 나타냄
-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확정일자를 앞두고 아파트 가격은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보합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월대비 0.1% 하락한 반면, 단독주택이 0.1%, 연립주택이 0.5% 상승하여 연립주택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5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상승폭이 3월에 비해 감소함
- 11월 이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의 둔화가 지속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0.1% 상승한 반면, 강남은 0.4% 하락하여 강북의 상승세가 둔화되어 가고, 강남은 하락세가 이어짐
- 주택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이 0.5%, 단독주택이 0.4% 상승한데 반해, 아파트는 0.2% 하락을 보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1.0	1.9	0.9	0.4	0.2	0.1	0.0	(9.7)	
서울	1.5	3.0	1.5	0.4	0.4	0.2	0.1	(15.4)	
아파트	2.0	3.7	1.8	0.3	0.2	0.0	-0.2	(16.9)	
지역별	강북	0.8	3.8	2.0	0.6	0.6	0.5	0.1	(20.8)
주택매매	강남	2.8	2.2	1.1	0.2	0.2	-0.3	-0.4	(14.4)

주: 전월대비 증감률, ()안은 전년동월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용산구, 중랑구

- 강북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 구 중 10개 구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1%)을 웃돌고 있으며, 이 중 3개 구가 강북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4%)을 상회함
- 용산구(1.9%)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중랑구(0.7%), 마포구(0.5%), 강북구(0.4%), 서대문구(0.3%), 성북구(0.3%), 은평구(0.3%), 도봉구(0.3%), 중구(0.2%), 노원구(0.2%)의 순임
- 반면 동대문구(0.1%), 성동구(0.0%), 종로구(0.0%), 광진구(-0.1%)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동작구, 영등포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관악구(0.2%), 동작구(0.2%), 영등포구(0.2%)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구에서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1%)을 하회함
- 강동구(-0.9%), 강남구(-0.6%), 송파구(-0.3%), 양천구(-0.2%), 서초구(-0.2%)는 전월에 비해 하락함
-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서초구는 지난달에 이어 전월 하락세가 지속됨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 로 전월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강북은 0.1% 상승한 반면, 강남은 0.4% 하락하여 강북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강남은 지난달의 하락세가 이어짐
- 구별로 보면 동대문구(0.4%), 도봉구(0.3%), 성북구(0.3%), 중구(0.3%), 중랑구(0.3%), 강북구(0.2%), 노원구(0.2%), 금천구(0.2%), 동작구(0.2%), 서대문구(0.1%), 성동구(0.1%), 종로구(0.1%), 마포구(0.0%), 구로구(0.0%)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용산구(-0.1%), 강서구(-0.1%), 관악구(-0.1%), 은평구(-0.2%), 서초구(-0.3%), 영등포구(-0.3%), 송파구(-0.4%), 광진구(-0.5%), 양천구(-0.6%), 강남구(-0.7%), 강동구(-1.5%)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함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하락한 1,732만원으로 지난달의 하락세가 지속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3484만원), 서초구(2760만원), 송파구(2525만원), 용산구(2316만원), 양천구(2154만원), 강동구(1907만원), 광진구(1820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노원구(985만원), 도봉구(939만원), 강북구(927만원), 중랑구(908만원), 은평구(906만원), 금천구(887만원)임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5월 기준 서울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지속

- 5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됨
-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인한 매매시장의 침체가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월대비 전세가격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5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0.4%p 감소함
- 5월은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고 비수기에 접어드는 단계로, 평균적으로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 5월은 지난 22년간 5월 평균 증감률(0.0%)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이 0.1% 상승한 반면, 강남은 0.2% 하락을 나타냄
-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은 0.4%, 단독주택은 0.3% 상승한 반면, 아파트는 0.1% 하락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0.4	0.6	0.4	0.3	0.4	0.4	0.1	(5.5)	
서울	0.5	0.5	0.5	0.4	0.6	0.5	0.1	(8.1)	
아파트	0.6	0.6	0.7	0.4	0.6	0.4	-0.1	(8.2)	
지역별	강북	0.7	0.8	0.6	0.4	1.0	0.8	0.1	(10.4)
주택전세	강남	0.6	0.5	0.5	0.4	0.3	0.2	-0.2	(6.7)

주: , () !은 전년동월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중랑구,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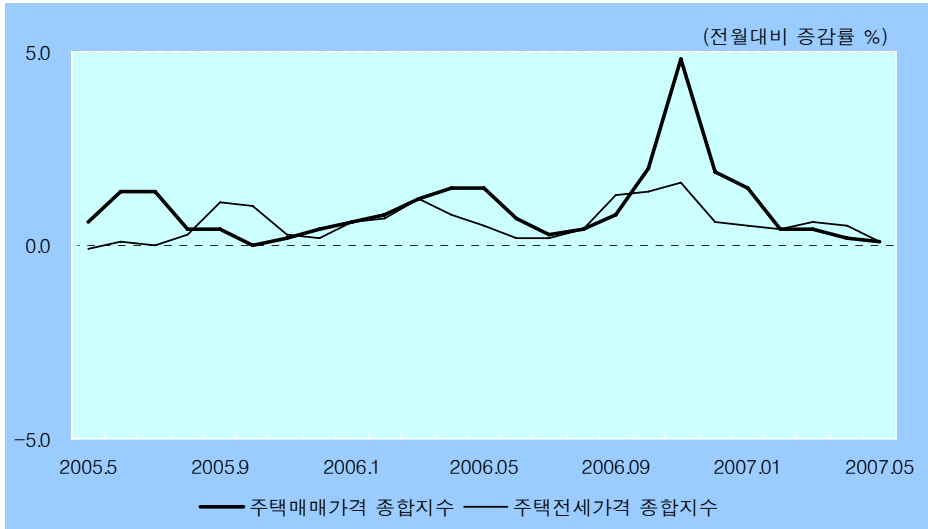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중랑구(0.7%)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중구(0.5%), 동대문구(0.4%), 성북구(0.4%), 구로구(0.4%), 관악구(0.3%), 송파구(0.3%), 도봉구(0.3%), 은평구(0.3%), 강북구(0.2%), 강서구(0.2%), 동작구(0.2%)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0.1%)을 상회함
- 강남구(-0.5%), 양천구(-0.3%), 서초구(-0.3%)는 하락세를 나타냄

■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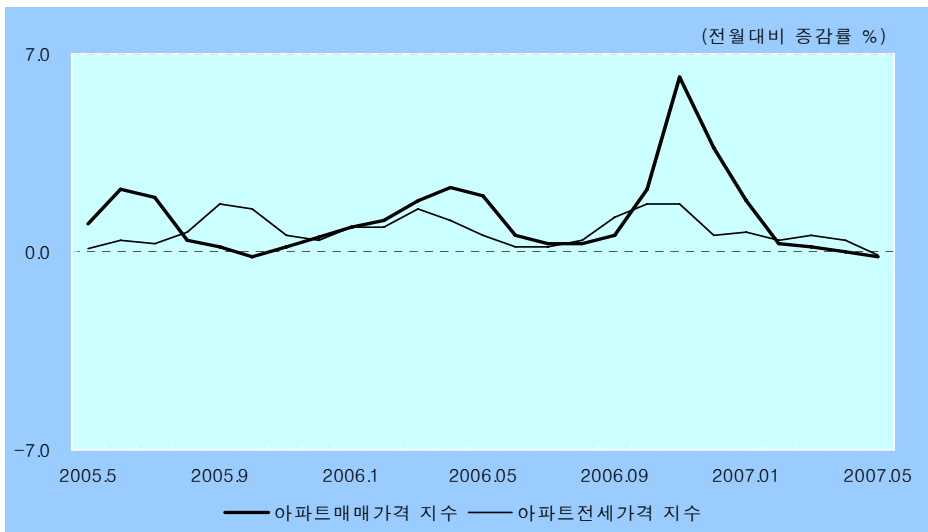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전월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0.1% 상승한 반면, 강남은 0.2% 하락함
- 구별로는 은평구(1.0%), 중구(0.9%)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도봉구(0.4%), 송파구(0.3%), 강북구(0.2%), 동대문구(0.2%), 서대문구(0.2%), 금천구(0.2%), 노원구(0.1%), 종로구(0.1%), 중랑구(0.1%), 구로구(0.1%), 영등포구(0.1%)에서 전세가격의 상승률을 보이고, 성동구(0.0%), 용산구(0.0%), 강서구(0.0%), 관악구(0.0%)에서는 보합을 보임
- 반면 강남구(-0.6%), 서초구(-0.5%), 양천구(-0.4%), 강동구(-0.4%), 광진구(-0.4%), 성북구(-0.2%), 동작구(-0.1%), 마포구(-0.1%)는 전월 대비 하락함
- 4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한 619만원으로 강남구(974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강북구(427만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지난 2월 이후 상승세

- 2007년 5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3.2%로 지난 3월에 비해 미미한(0.1%p) 상승을 나타냄
- 이는 전국 평균 54.6%를 11.4%p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1월: 11.4%p, 2월: 11.5%p, 3월: 11.4%, 4월: 11.5%)는 1월 이후 보합세를 보임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9.8%, 강남은 37.7%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지속됨
- 지난 11월 처음 30% 대를 기록한 강남지역은 2월 이후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을 반영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5월중 KOSPI 지수 계속되는 상승세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상승

- 5월말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전월대비 0.12%p 상승한 5.17%로, 전월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됨
- 이는 4월에 이은 단기자금시장 불안감 지속과 미 국채 수익률 상승, 경기회복 기대감, 국내 주가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함
- 월중반 이후 단기자금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았으나 양호한 산업생산 동향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

■ CD(91일) 유통수익률 상승

- 5월말 CD 유통수익률은 5.07%(5.17일)까지 상승하였다가 월말에 소폭 하락하여 전월에 이은 상승세를 지속함
- 5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4.56%로, 전월대비 크게(0.32%p) 하락함

■ 장·단기 금리차 확대

- 5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의 상승과 콜금리의 하락이 맞물려 확대됨에 따라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KOSPI 지수 계속되는 사상 최고치 경신

- 5월중 증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안정적인 유동성 등 대내적 요인과 글로벌 증시 강세의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로 마감함(1,700.9p, 5.31일)
- KOSPI 지수는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5.31일 1,700대에 진입함
- KOSDAQ 지수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며, 5.31일 종가기준 연중 최고치로 마감함(727.9p, 5.31일)

■ 원/달러 환율 하락

- 5월중 원/달러 환율은 월초반 주식시장 호조 및 비거주자의 달러화 매도 영향 등으로 연중 최저수준인 922원대(5.7일)로 하락함
- 월 중순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934원대(5.18일)까지 반등하였으나 월 후반 중국의 위안화 변동폭 확대 영향 등으로 다시 하락하여 920원대 후반대에서 보합세를 보이며 마감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2007년					증감
		5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5일	
금리	국고채(3년)	4.72	4.86	4.76	5.05	5.17	5.25	0.12
	CD(91일물)	4.36	4.94	4.94	5.00	5.06	5.03	0.06
	콜금리(1일)	3.96	4.55	4.61	4.88	4.56	4.52	-0.32
	장단기 금리차 ¹⁾	0.76	0.31	0.15	0.17	0.61	0.73	0.44
주가	KOSPI ²⁾	1,317.7	1,417.3	1,452.6	1,542.2	1,700.9	1,757.7	158.7
	KOSDAQ ²⁾	630.5	600.9	649.0	675.9	747.9	796.8	72
환율 (W/US\$) ²⁾		947.4	941.8	940.9	930.8	929.9	927.7	-0.9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

- 5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에 그침
-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의 대출채권 매각, 개별대출 순상환 등으로 1.2조원 감소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 대출은 각종 기념일 요인으로 1.4조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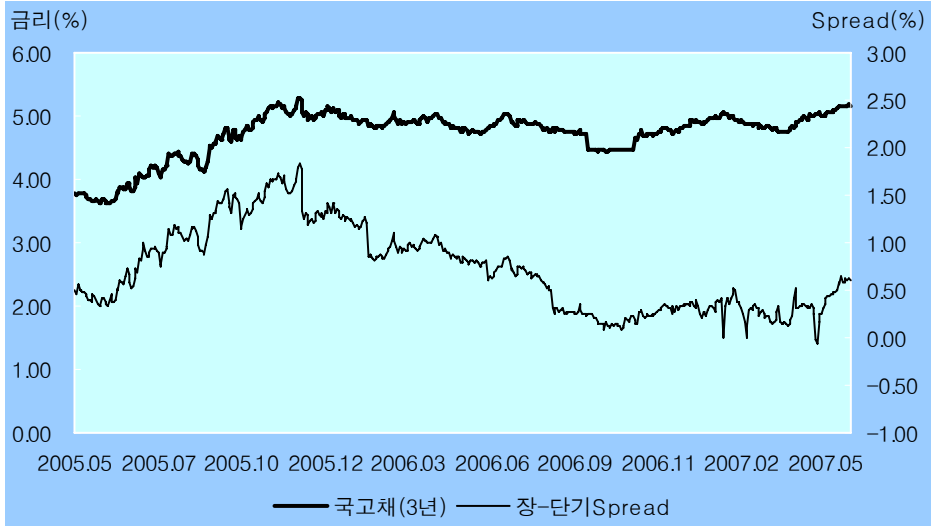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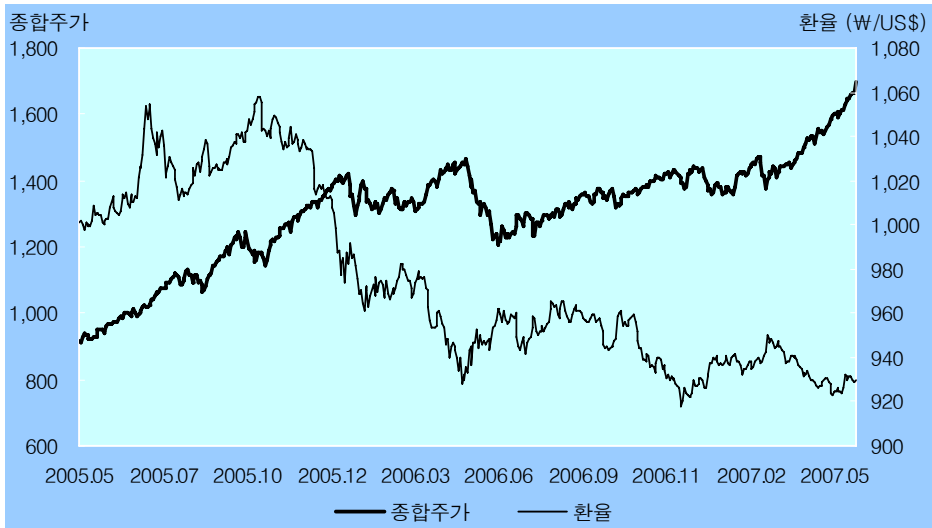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월말잔액		전월비
	연중	5월	2월	3월	4월	5월	2007년		
							4월	5월	
가계대출 ¹⁾	40.9	4.6	1.9	0.7	1.4	0.2	349.4	349.6	0.06
주택담보대출 ²⁾	26.8	3.1	0.4	0.0	0.0	-1.2	218.3	217.0	-0.60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4.0	1.4	1.5	0.7	1.3	1.4	129.5	130.9	1.07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4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폭 확대

- 4월말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955조 9,053억원으로, 전월대비 15조 2,879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3월 증가액: 10조 8791억원)이 소폭 확대됨
- 4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69조 1,651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7,863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5조 6,084억원)보다 소폭 확대됨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원)

		2006년	2007년				증감
		4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예금은행	638,214.3	700,256.6	708,048.2	717,066.5	728,294.8	11,228.3
	비은행기관	195,567.3	219,504.2	221,690.1	223,550.9	227,610.5	4,059.6
	합계	833,781.6	919,760.8	929,738.3	940,617.4	955,905.3	15,287.9
서울	예금은행	268,773.4	289,422.6	291,432.1	295,805.6	301,454.8	5,649.2
	비은행기관	51,127.0	63,204.0	64,338.3	65,573.2	67,710.3	2,137.1
	합계	319,900.4	352,626.6	355,770.4	361,378.8	369,165.1	7,786.3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4월 기준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

- 4월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전월에 비해 0.8%p 상승한 56.4%p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6년	2007년				증감
	4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84.1	84.0	83.9	84.1	85.0	0.9
서울	58.1	55.1	55.1	55.6	56.4	0.8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 · 업 · 동 · 향 |

5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감소

- 5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1.4%(-65개) 감소한 4,511개임
- 업종별로는 전월에 비해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이 11.1% 증가한 반면, 제조업(-5.0%)과 서비스업(-3.7%)은 하락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3.3%, 제조업 19.2%, 건설 및 설비업 16.4%를 차지함

■ 서울 신설법인 수 감소

- 5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4.1%(-72개) 감소한 1,692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7.5%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4.9%)과 제조업(-1.4%)이 감소한 가운데 건설 및 설비업은 3.1% 증가함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감소

-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1,421개로 전월대비 4.9%(-74개) 감소함
- 부문별로 보면 통신업(-80.0%), 운수업(-28.0%), 숙박 및 음식점업(-16.7%), 기타서비스업(-14.0%) 등 전부문에서 감소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전월(84.8%)보다 다소 낮은 84.0%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5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020	4,072	4,932	4,576	4,511	-65	-1.4	491	12.2
서울	1,655	1,524	1,879	1,764	1,692	-72	-4.1	37	2.2
서비스업	1,347	1,283	1,586	1,495	1,421	-74	-4.9	74	5.5
제조업	148	110	136	140	138	-2	-1.4	-10	-6.8
건설 및 설비업	157	129	155	128	132	4	3.1	-25	-15.9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5월 기준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5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과 동일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97개로, 전월(169개) 보다 28개 증가하였으나 2006년중 평균 211개는 하회함
- 업종별로 제조업(58개→73개)과 건설업(38개→43개), 서비스업(66개→78개) 등 모두 증가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5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1월 이후 변동 없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52개) 보다 3개 증가한 55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
- 지역별 부도업체 수는 서울이 3개, 지방은 25개(117개→142개) 각각 증가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27.9%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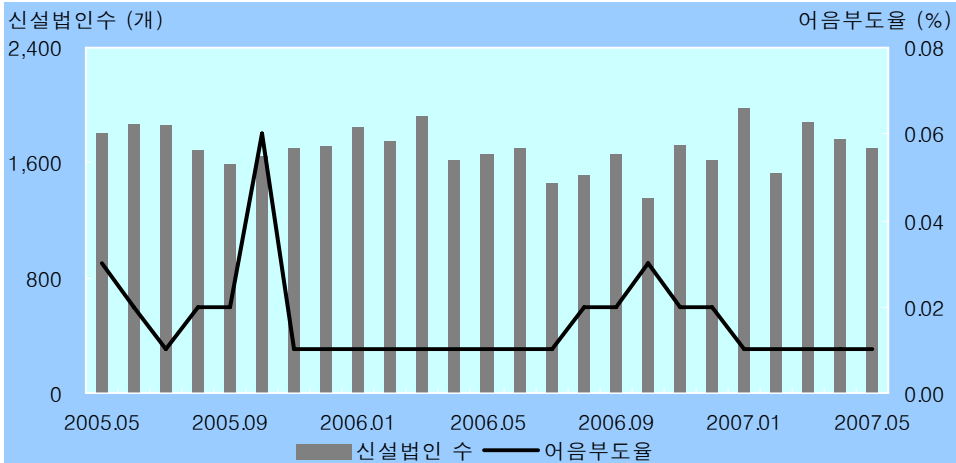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5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2	0.01	0.02	0.02	0	0.00	0	0.00
	부도업체 수	189	159	216	169	197	28	16.6	8	4.2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1	0.01	0.01	0.01	0	0.00	0	0.00
	부도업체 수	59	59	65	52	55	3	5.8	-4	-6.8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5월 기준 신용보증 공급의 증가세 주춤

■ 신용보증 공급의 증가세 주춤

- 5월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3,111건, 57,591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4.4%, 금액 19.1% 감소함
- 건당평균 금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시행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속적인 보증수요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신용보증 공급이 다소 감소하며 증가세가 주춤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666	621	1,005	1,863	3,254	3,111	-143	-4.4	2,445	367.1	
금액	20,183	17,892	33,485	55,239	71,217	57,591	-13,626	-19.1	37,408	185.3	
건당평균금액	30.3	28.8	33.3	29.7	21.9	18.5	-3.4	-15.5	-11.8	-38.9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제조업의 비중 2개월 연속 감소

- 5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전월과 비교하여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6.2%p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낸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3.6%p 증가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296	1,114	632	722	347	3,111
비율	9.5	35.8	20.3	23.2	11.2	100
금액	7,782	21,751	8,870	13,362	5,826	57,591
비율	13.5	37.8	15.4	23.2	10.1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의 비중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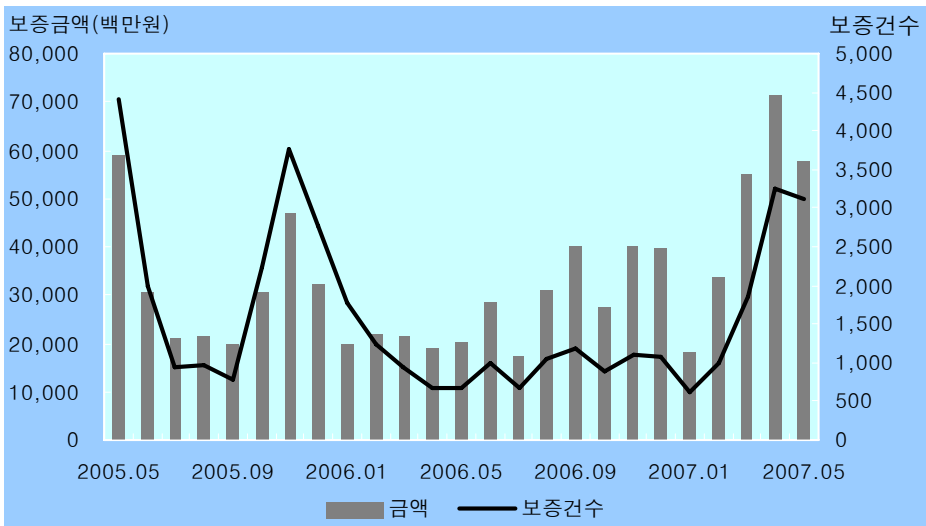
- 소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3개월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며 12.5%를 나타낸 반면 소상공인 및 중기업의 비중은 전월 수준을 유지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7.03	2007.04	2007.05	전월대비 증감
소상공인	건수	1,716	3,063	2,921	-142
	비율	92.1	94.1	93.9	-0.2
	금액	39,220	55,500	45,366	-10,134
	비율	71.0	77.9	78.8	0.9
소기업	건수	116	149	132	-17
	비율	6.2	4.6	4.2	-0.4
	금액	11,245	10,602	7,214	-3,388
	비율	20.4	14.9	12.5	-2.4
중기업	건수	31	42	58	16
	비율	1.7	1.3	1.9	0.6
	금액	4,774	5,115	5,011	-104
	비율	8.6	7.2	8.7	1.5
합계	건수	1,863	3,254	3,111	-143
	비율	100	100	100	0
	금액	55,239	71,217	57,591	-13,626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5월 기준 서울 수출 증가세 다소 둔화, 수입 높은 증가세

■ 전국 수출 견실한 증가세 시현

- 5월 전국의 수출은 사상최고치(311억 1,760만 불)를 기록하여 견실한 증가세를 보임
- 환율하락 등 불리한 여건에도 조업일수 증가(+0.5일), 철강·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 등에 힘입어 월간 실적으로는 역사상 최고치이며 16개월 연속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자동차(20.0%), 철강제품(21.6%), 선박(12.5%), 일반기계(19.4%)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수출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반도체는 가격하락에 따라 부진함

■ 전국 수입 2개월 연속 수출증가율 상회

- 5월 전국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하여 297억 2,410만 불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용도별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의 빠른 회복 등에 따라 원자재·자본재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소비재는 승용차, 식료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됨

■ 서울 수출 증가세 다소 둔화

- 5월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한 23억 2,840만불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59.6%), 고무제품(16.3%), 편직물(8.0%), 반도체(4.7%) 등 대부분이 증가하고 기타직물(-8.1%) 등은 감소함. 국가별로는 중국(14.5%), 미국(4.9%), 싱가포르(35.8%) 등이 증가하고 일본(-0.9%) 등은 감소함

■ 서울 수입 높은 증가세 유지

- 5월 서울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3.3% 증가한 59억 7,840만 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항공기 및 부품(247.4%), 동제품(66.9%) 등이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2.3%), 컴퓨터(-8.5%) 등은 감소함. 국가별로는 중국(21.2%), 일본(27.8%), 미국(18.8%) 등 대부분이 증가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5월	1월	2월	3월	4월p	5월p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7,934.5	28,084	26,224	30,393	29,961.8	31,117.6	3,183.1	11.4	1,155.8	3.9
	수입	26,210.4	27,668	25,315	29,106	29,325.6	29,724.1	3,513.7	13.4	398.5	1.4
서울	수출	2,098.3	2,007	1,826	2,331	2,261.0	2,328.4	230.1	11.0	67.4	3.0
	수입	4,848.3	5,166	4,794	5,470	5,892.9	5,978.4	1,130.1	23.3	85.5	1.5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6년 4월		2007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098,289	8.3	2,328,386	11
1	편직물	173,751	20.8	187,598	8
2	반도체	154,157	28.6	161,462	4.7
3	의류	117,692	-18.9	118,753	0.9
4	합성수지	100,203	41.7	104,827	4.6
5	고무제품	88,643	26.9	103,132	16.3
6	자동차부품	58,894	6.1	94,009	59.6
7	인조장섬유직물	81,433	17.2	87,990	8.1
8	무선통신기기	78,685	-12	75,266	-4.3
9	기타직물	81,819	24.6	75,192	-8.1
10	컴퓨터	66,142	-23.6	63,287	-4.3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6년 4월		2007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4,848,262	17.8	5,978,391	23.3
1	반도체	364,658	9.3	354,692	-2.7
2	컴퓨터	367,688	-15.9	336,543	-8.5
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82,149	103.1	302,569	268.3
4	항공기및부품	65,273	-71.4	226,769	247.4
5	자동차	167,543	-26.2	220,939	31.9
6	의류	186,117	9.1	206,314	10.9
7	석유제품	131,235	5	170,086	29.6
8	동제품	97,433	152.1	162,654	66.9
9	철강판	76,489	172.2	124,895	63.3
10	원유	0	-	117,299	-

